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6期(2026.02.06) WWW.MINGHUI.ORG

한글판 1040호 minghui.or.kr



▲ 2026년 1월 31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랜드 시내 커머셜 베이(Commercial Bay) 광장에서 단체 연공 및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했다.

주요내용

- 【해외종합】 영국 외교부, 중공의 선원 협박에 “초국가적 탄압 용납 않겠다”
- 【수련교류】 최근 발정념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
- 【수련교류】 우리 가정 자료점에 대해 이야기하다
- 【시사평론】 25년 전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목격자들이 거짓말 폭로

〈목 차〉

■ 해외종합

영국 외교부, 중공의 선원 협박에 “초국가적 탄압 용납 않겠다” ……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6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14

■ 수련교류

최근 발정념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 …………… 18
우리 가정 자료점에 대해 이야기하다 …………… 20
변호사 접견 저지는 전체적인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다 …………… 26
정념(正念)과 인념(人念) …………… 29
중국 수련생은 ‘명혜주보’ 지방관 배포를 중시하기 바란다 …………… 33
주변 노년 수련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 35

■ 시사평론

25년 전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목격자들이 거짓말 폭로 …………… 41
부(富)가 더 이상 사회 흐름의 나침반이 아닐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진다 …………… 47

■ 문화예술

투고문을 쓸 때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 55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외교부, 중공의 선원 협박에 “초국가적 탄압 용납 않겠다”

[명혜망](런던 지국) 2026년 1월 23일, 영국 파룬따파불학회(法輪大法佛學會)는 영국 외교부로부터 서신을 받았다. 선원(神韻)예술단 2026년 영국 순회공연 시작 전후로 중공(중국공산당) 스파이와 그 하수인이 극장과 단원들을 겨냥해 연이어 협박을 가한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정중하게 회신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어떤 외국 세력이든 영국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협박, 괴롭힘 또는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영국 외교부는 영국 정부가 파룬궁수련자, 선원 단원 및 관객의 안전과 보장을 매우 중요시하니 안심하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 여러 극장이 협박 메일을 받다

선원예술단 2026년 영국 순회공연은 1월 2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으며, 영국 12개 도시에서 52회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티켓 판매는 폭발적이었으며 거의 매회 매진됐다. 그러나 공연 전후로 여러 주최 극장이 중공 스파이와 그 하수인으로부터 협박 메일을 잇달아 받았다. 어떤 것은 중문으로, 어떤 것은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내용은 폭력적인 위협과 정치적 압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버밍엄: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두 통의 협박 메일

순회공연의 첫 번째 방문지인 버밍엄의 모 극장은 공연 며칠 전 두 통의 협박 메일을 연이어 받았다.

첫 번째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원 공연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장거리 저격당할 것이다.”

두 번째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미 다량의 플라스틱 폭탄을 설치했다. 이 폭탄들은 1시간 내에 폭발할 것이다.”

옥스퍼드: 허위 ‘위험 평가’와 테러 공격 위협

선원 순회공연의 두 번째 방문지인 옥스퍼드에서도 현지 극장이 공연 전 여러 건의 협박 정보를 받았다. 그중 한 메일은 자신이 아시아 문화와 파룬궁을 연구하는 ‘독립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위험 평가’라는 명목으로 다량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명백히 위협적인 진술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정부는 선원 공연 개최를 적대적인 정치 행위로 간주한다.”
- “영구 배제: 선원 공연을 개최하는 장소는 종종 ‘비협조 명단’에 오르게 되며, 향후 중국 공식 국립 교향악단, 발레단 또는 전시회 유치가 영구적으로 금지돼 중국의 거대한 문화 시장 및 관련 후원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2026년 1월 10일, 영국 선원 대표소와 옥스퍼드 극장은 유명 인사의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을 또다시 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선원 공연을 고집한다면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것이다.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다.” 메일에는 총알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경찰 수사 착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

상술한 버밍엄과 옥스퍼드 해당 극장은 모두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공연 기간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협박으로 인해 일정 부분 방해가 있었지만 선원 공연은 원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영국 파룬따파불학회는 이후 이 일련의 심각한 사건을 영국 정부 관련 부처에 사실대로 알렸다. 영국 외교부는 1월 23일 정식으로 답신을 보내 파룬궁과 선원예술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영국 정부의 명확한 태도 “초국가적 탄압 절대 용납 안 해”

영국 외교부는 답신에서 우선 파룬궁이 겪는 박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월 9일 자 편지를 통해 최근 영국에서 선원 단원들과 공연 장소를 겨냥한 협박 사건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환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국은 중국 내외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겪는 박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신은 정부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밝혔다. “현 영국 정부는 인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파룬궁수련자, 선원 단원 및 관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동시에 정부의 최우선 책무를 재천명했다.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포함한 외국의 간섭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외국 세력이든 영국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협박, 괴롭힘 또는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편지 말미에 영국 정부는 파룬궁수련자와 선원예술단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약속을 했다.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안심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파룬궁수련자, 선원 단원 및 관객의 안전과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1월 하순, 미국 선원(神韻)예술단 소속 동등한 규모의 8개 예술단이 계속해서 구미(歐美)와 아시아에서 동시 공연을 펼쳤다. 그중 유럽과 미국 6개국 주류 관객은 공연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선량함에 깊이 감동했다.

선원이 다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왕립해 예술의 도시 관객들을 깊이 감동시키고 도취시켰다. 2026년 1월 23일, 선원 공연을 함께 관람한 리히텐슈타인 군다카르 (Gundakar Prinz von Liechtenstein) 왕자와 마리 (Marie Prinzessin von Liechtenstein) 왕비가 선원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왕자는 찬탄했다. “공연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문화가 5천 년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마리 왕자비는 프랑스 왕실 출신으로, 출가 전 칭호는 오를레앙 공주였으며 현재는 리히텐슈타인 왕자비다. 그녀는 유럽 전통문화와 선원이 보여준 중국 전통문화가 예술 형식, 문화 관습, 가치관 등 많은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했다. “전통 면에서 많은 관련과 공통점이 있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는 소프라노가 부른 신을 찬미하는 시구가 아주 좋았습니다. 창세주가 진정한 모든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특히 중요한데, 신성(神性)이 날로 유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유실되고 무신론이 날로 성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신에 대한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밤 본 아름다움은 제게 많은 유익함을 줬습니다. 저는 수시로 이런 아름다움을 떠올릴 것입니다. 비록 도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계속 마음속에 간

직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저녁, 스위스 연방 상원의원 마우로 포지아(Mauro Poggia)가 제네바에서 선원을 관람했다. 마우로 포지아는 공연이 사람을 내면을 살피게 하고, 잃어가는 전통 가치관을 되찾게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직접 이런 전통 음악을 듣고 이런 전통 악기를 볼 때, 언어와 행동이 필요 없는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가치관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선원이 보여준 가치관은) 인류가 소중히 여겨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공연은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의 존중도 얻게 합니다. 공연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느낌을 표현했고 관객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격동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인류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화목의 정신이 이미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이 이런 방식으로 가치관을 표현해 사람을 고무시킵니다.”

프랑스 수도에서 선원 공연은 연일 매진됐고, 각계 인사와 단체의 발길이 이어져 선원 관람은 파리 사람들의 큰 행사가 됐다. 항성 진화와 우주 물리학 등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프랑스 천체 물리학자 라파엘 가르시아(Raphaël Garcia)는 선원이 5천 년 전통문화 부흥에 힘쓰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했다. “고대 문화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고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어떤 것도 미래 세대에 아주 좋습니다.”

세계 패션과 디자인의 수도이자 깊은 예술 문화적 저력을 지닌 이탈리아 제2의 도시 밀라노에서는 선원 공연이 매회 매진됐다. 국제 피겨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 로렌자 알레산드리니(Lorenza

Alessandrini)는 말했다. “최고 수준의 기량과 놀라운 예술 형식을 진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선원 중국 고전무용의 뛰어난 기교와 무대 연출에 깊이 도취했다.

영국 노샘프턴에서는 공연 티켓이 이미 몇 주 전부터 구하기 힘들었다. 공연 당일 극장 내 분위기는 고조됐고, 관객들은 선원이 전하는 사랑과 희망에 감탄하며 선원 예술가들이 가져온 예술적 충격과 정신적 계발에 열정적으로 화답했다.

미국 텍사스 주도 오스틴 관객은 선원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천국 세계의 신성함과 장엄함을 느꼈다. 어떤 관객은 심지어 선원 무대에서 날개 달린 천사를 보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스크린 한쪽에서 솟아올라 위로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관객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신성한 에너지에 찌르고 신성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선원 신기원예술단의 2026년 아시아 대만 순회공연이 1월 9일부터 28일까지 마오리, 장화, 자이,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공연은 매회 만석으로 빈 좌석이 없었으며, 정계, 재계, 법조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등 주류 엘리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막이 천천히 오르자 관객들은 탄성과 박수 속에서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영혼의 전율을 맞이했다. 어떤 이는 선원을 “최고 경지의 예술”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이는 성스럽고 거대한 에너지를 느끼며 “무용, 음악, 창작력이 모두 신계(神界)에서 왔다”고 말했다. 또한 관람 과정에서 자신의 사명과 가치를 발견한 이도 있었다. 입법위원(국회의원) 왕메이후이(王美惠)는 막이 열릴 때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원래는 ‘대사 한마디 없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며 확신하지 못했으나, 실제로 객석에 앉아

보니 선원 공연이 가져다주는 강렬한 감정의 힘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됐고, 현재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호소했다. “정말로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모든 출연자에게 감동하게 됩니다.”

전 대법관 황홍샤(黃虹霞)는 “공연은 예술을 통해 선의 씨앗을 퍼뜨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이 세간의 명예와 이익에 미혹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원이 예술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는 일종의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선원에 경의를 표했다. 황홍샤는 대만 최초의 ‘변호사 출신’ 여성 사법원 대법관(2015~2023년 재임)으로, 임기 내 ‘법을 밝히고 정의를 숭상하며, 용기 있게 일을 맡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재임 중 여러 건의 대만 중대 헌법 해석 사건의 헌법재판에 참여했다.

전 사법원장 라이하오민(賴浩敏)은 “선원의 프로그램은 모두 인류사회 전통문화의 정수입니다”라며, “정말 다 좋다고 생각하며, 아주 마음에 듭니다”라고 극찬했다. 라이하오민은 특별히 꽃바구니를 보내 선원 공연의 원만한 성공을 축하하며 선원 예술가들에게 축복을 전했다. “선원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 공연이 좀 더 보편화된다면 인류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만 사법계 최고위 장관을 지낸 라이하오민은 “인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전히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설을 맞아 호주 멜버른의 일부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시내 재무부 정원(Treasury Gardens)에 모여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

쑤(李洪志) 선생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각 민족 출신 수련자들은 예복이나 전통 민족 의상을 차려입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축원을 전했다. “사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수련자들은 각자의 수련 경험을 나누며, 파룬따파가 개인의 심신은 물론 가정 관계와 지역사회 생활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다. 파룬따파의 핵심 저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리홍즈 선생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진(真)·선(善)·인(忍)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우리는 평소에 慈悲(츠뻬이)한 마음과 상화(祥和)한 심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멜버른의 한 고위 경찰관인 리슨(Li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관으로서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접하게 되고, 때로는 매우 끔찍한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매일 《전법륜》을 읽으면 제 마음가짐을 긍정적이고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국회의사당 옆 화폐광장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파룬궁을 알리고 진상을 전하는 활동을 펼쳤다. 날씨는 비록 추웠으나 여전히 많은 행인이 찾아와 발걸음을 멈추고 진상을 이해했다. 많은 이가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에 반대하며 보여준 확고함에 감동해 자발적으로 서명하며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스웨덴의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빌리아나는 자주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현지 진상 알리기 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진선인 수련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다. 빌리아나는 “2019년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

년간 저를 괴롭히던 불안증이 사라졌습니다. 제 생명의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고 아들과의 관계도 개선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수련 7년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고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진리를 찾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 27일은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Day)이며 증오와 차별, 종족 말살의 재발을 경계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당일, 핀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섭씨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촛불 추모행사를 열고,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27년 동안 자행해 온 박해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 행사장의 촛불은 추운 밤 정적 속에서 흔들리며 사람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인권 위기에 관심을 가질 것을 일깨웠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아이치(Archie)는 사망한 수련자들의 영정 사진이 놓인 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박해는) 매우 심각하며 중국 같은 대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중국공산당)의 소행은 매우 잘못됐으며, 이는 국적과 상관없는 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박해 행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의 목소리가 작더라도 이를 크게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박해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가 위치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 제3의 도시이자 남홀란트주의 주도인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정치 중심지로, 중앙정부와 의회, 각국 대사관이 모두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혹한이나 무더위를 가리지 않고 매주 주말이면 파룬궁수련자들은 헤이그 시내 중심 상업지구(Grote Marktstraatt)에 진상 부스를 설치해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하고 전단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곳을 오가는 비즈니스맨, 학자, 유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대법 진상을 듣고 중국공산당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현재까지 자행하고 있는 잔혹한 박해에 대해 알게 된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한 많은 사람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미 진상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지지와 존경을 표했다. 네덜란드 라이던대학교 교수 두 명이 다가와 중문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다. 생물학을 가르치는 그들은 중국에서 온 박사과정생이나 방문학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박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중국인 동료들에게 진상 자료를 전달해 그들이 실제 정보를 얻고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1월 31일 토요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랜드 시내 커머셜 베이(Commercial Bay) 광장에서 단체 연공 및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인파가 붐비는 광장에 진상 전시대를 설치하고 파룬따파 5장 공법을 시연하고 무료로 공법을 가르쳤으며, 용춤 공연도 선보여 많은 시민의 발길을 붙잡고 관심을 끌었다. 적지 않은 행인이 연공과 공연을 관람한 후 자발적으

로 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파룬따파 공법 및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이념에 대한 소감을 공유했다. 퇴직 교사이자 전직 교장인 로저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연공을 관람한 후 “파룬궁 공법 동작이 부드러우면서도 포괄적이어서 신체를 단련하고 근육과 뼈를 이완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처럼 속도가 빠르고 스트레스가 큰 사회에서 명상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로저는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학교 교육, 그리고 어린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정직하고 서로를 선하게 대하며 관용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중공이 왜 무고하고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지에 대해 그는 “독립적인 사고와 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선인이 제창하는 바인데 중공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상을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며, 이것이 박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스먼자이진 파룬궁수련자 가오싱타이(高興泰)는 2018년 4월, 자택에서 리구이빈(李桂彬·여·당시 76세), 상슈쥘(尚秀君)과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주요 저작 ‘전법륜(轉法輪)’을 읽던 중 경찰이 침입해 납치되고 모함을 당했다. 2019년 3월 21일, 그는 소위 ‘재판’을 받았고 이후 불법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탕산 지동 감옥에서 박해를 받아 피골이 상접하고 말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20여 일 만인 2025년 9월 6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다. 당시 납치된 파룬궁수련자 상슈쥘(尚秀君)은 불법 감금, 갈취, 거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2018년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리구이빈은 2019년 7월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허베이 여자감옥으로 납치됐으며, 2023년 4월 16일 박해로 사망했다. 리구이빈(李桂彬)은 2019년 7월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허베이 여자감옥으로 납치됐으며, 2023년 4월 16일 박해로 사망했다.

허베이성 탕산시 평룬구 파룬궁수련자 샤오원화(肖文華), 평후이(彭輝) 부부가 2023년 11월 광시 난닝시에서 난닝시 공안국 칭슈분국에 납치돼, 이후 난닝시 제2구치소에 구금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인 11월 17일, 그들은 난닝시의 한 카페에서 휴대폰 블루투스를 이용해 매장 내 공용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는데, 내용이 이른바 ‘민감한 정보’와 관련됐다고 지적됐다. 2025년 3월, 난닝시 장난구 검찰원은 두 사람을 상대로 불법 소송을 제기했다. 6월 11일과 12일, 장난구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

었고, 12월 16일에야 판결 결과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억울하게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각각 벌금 2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원난성 자오통시 차오자현의 파룬궁수련자 왕더잉(況德英·64)이 2025년 8월 3일 집에서 경찰에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현재 우화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불법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왕더잉은 개인 사업을 해왔고 2002년 무렵 쿤밍으로 와서 소규모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왕더잉은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일곱 차례 납치와 불법 가택수색, 구금을 당했고 두 차례 노동수용소에서 도합 5년간 박해받았으며 6개월간 초과 구금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징역 4년, 2020년에는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1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내몽골 츠핑시 닝청현의 78세 파룬궁수련자 텐수잉(田淑英·여)은 2026년 1월 초 현지 공안의 통보를 받고 닝청현 공안국에 갔다가 현장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그녀가 구금된 장소, 사건 상세 내용 및 법적 절차는 모두 불분명하며 가족은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다. 2025년 7월 상순, 텐수잉 노인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를 당했다. 현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다밍진 파출소 경찰들이 텐수잉의 집으로 몰려와 파룬따파 서적과 사부님 사진, 그리고 휴대폰 등 개인 물품을 가택수색 해 박해 증거로 삼아 모함했다. 이후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른바 ‘처분보류’ 조치를 했으며, 이 기간에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산둥성 웨이팡시 노년 파룬궁수련자 4명이 2026년 1월 27일,

웨이팡 팡쯔구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69세 왕쑤메이(王素梅)는 1년 6개월, 78세 우아이충(武愛聰)은 1년 4개월, 77세 옌젠윈(彦建雲)은 1년 2개월, 80세 왕위편(王玉芬)은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웨이팡시 팡쯔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公安기구) 경찰은 2025년 8월 말부터 파룬궁을 수련하는 할머니들을 잇달아 납치했다. 8월 29일에는 우아이충 노인을, 8월 30일에는 왕위편 노인을, 9월 1일에는 왕쑤메이 노인을, 9월 3일에는 옌젠윈 노인을 납치했으며, 9월 4일에는 78세 리슈화(李秀花) 할머니를 납치했다. 웨이팡시 팡쯔구 공안분국과 팡쯔구 검찰원은 한 차례의 조작과 허위 과정을 거친 후, 왕쑤메이, 우아이충, 옌젠윈, 왕위편을 모함해 팡쯔구 법원에 기소했다.

푸젠성 푸저우시의 84세 파룬궁수련자 왕슈친(王秀琴) 노인은 정부 관리에게 파룬궁 진상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푸저우시 공안국 창산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公安기구) 경찰에게 모함을 당했다. 2025년 10월 9일, 그녀는 푸저우시 민칭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6년 1월 하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불법적으로 징역 2년 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2월 12일, 창산 분국 국보 대대는 다시 그녀를 납치했다.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자 경찰은 그날 밤 ‘거주지 감시’를 명목으로 그녀를 귀가시켰다. 2025년 7월 14일 아침 8시경, 창산 분국 국보 대대장 레이메이파(雷美法) 등 경찰이 왕슈친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푸저우시 제2구치소로 납치해 계속해서 모함했다.

충칭시 난안구의 70대 파룬궁수련자 류서우위(劉守渝)가 2025년 4월 2일 이른 아침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후, 난안구 잉룽진 제1구치소에 감금돼 누명을 썼다. 2025년 11월

19일 불법 재판이 열렸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12월에 부당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류서우위(또는 류얼메이)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전, 오랫동안 위장병, 심장병, 요통, 류머티즘, 마비 증상, 비문증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려 종일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했으며,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녔으나 차도가 없었다. 2008년 8월 대법 수련을 시작한 후 일주일도 안 돼 병증이 명확히 호전돼 건강을 회복했다.

랴오닝성 선양시 위홍(于洪)구의 53세 파룬궁수련자 리주칭(李著淸)은 2025년 8월 26일 자택에서 위홍 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2025년 11월 20일 그녀는 신민시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 2025년 12월 17일 신민시 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고, 12월 25일 억울하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했다. 리주칭은 이미 선양시 중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윈난성 쿤밍시의 78세 파룬궁수련자 안순롄(安順蓮)은 단지 부당한 한 청년에게 선의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롄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정성껏 외우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신고당해 현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및 모함을 당했다. 2024년 12월 16일, 쿤밍시 시산구 법원은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했다. 최근 경찰은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그녀를 병원으로 유인한 후, 2026년 1월 12일 그녀를 윈난성 제2 여자감옥으로 납치해 감금했다.

최근 발정념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발정념은 사존께서 제자들에게 잘하라고 요구하신 ‘세 가지 일’ 중 하나로 지극히 중요합니다. 대법제자는 반드시 모두 잘해야 합니다.

1. 예전에 발정념을 할 때는 그저 명혜망에 나온 내용에 따라 때로는 아주 마음을 써서 속으로 묵념하기도 했지만, 저 자신이 그 속에 녹아들어 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최근 사부님의 설법 ‘정념(正念)’과 발정념에 관한 명혜편집부의 문장들을 다시 학습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발정념을 할 때 “정력(精力)을 집중해야 하며, 두뇌는 절대적으로 청성해야 하고, 이지적이어야 하며, 염력(念力)을 집중하고 강대(強大)하게 하여 우주 중의 일체 사악을 초토화하는 유아독존(唯我獨尊)의 기세가 있어야 한다.” (정진요지 3-정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발정념을 할 때 정법구절을 읽고 나니 이 구절이 즉시 뇌리에 박히며 제 심신을 이끌었습니다. 신체는 곧아지고 몸이 비할 바 없이 커졌으며, 가슴 앞에 세운 손바닥은 무한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강대한 염력(念力)을 집중하여 ‘멸(滅)’자 하나를 염(念)” (정진요지 3-정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멸’ 자가 머릿속에서 무한히 확장되게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멸(滅)’자를 강대하게 하되 우주 천체처럼 크게 하며, 일체의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곳이 없고 누락된 곳이 없도록 한다” (정진요지 3-정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

니다. 저는 우주 천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모르기에, 사상 속에서 ‘떨’ 자를 무한히 연장했고 제 공(功)이 우주 안의 모든 사악을 떨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연공인(煉功人)을 두고 말하면 사람의 의념이 사람의 공능을 지휘해 일을 하나”(전법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념이 닿는 곳이라면 제 공능도 그곳까지 도달해 사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수리와 손바닥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온몸이 강력한 에너지에 포용돼 발정념 시간이 많이 연장됐습니다.

2. 첫 5분간 자신의 공간장을 정념으로 깨끗이 청리할 때, “의념(意念) 중에서 자신의 사상 중의 좋지 못한 사상염두(思想念頭)와 업력, 좋지 못한 관념 혹은 외래(外來)의 교란을 깨끗이 제거한다”(도항-2001년 캐나다법회 설법)라고 묵념한 뒤로는 제게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때로 사상이 집중되지 않아 깨끗이 청리하는 효과에 지장을 주기도 했으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생각과 관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 사상을 깨끗이 청리할 때 오직 한 가지 일념, 즉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과 관념, 외래 교란이라면 전부 깨끗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일념을 고수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 일상생활에서도 사상이 훨씬 깨끗해졌음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의 난잡한 현상, 특히 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된 사회 환경 속에서 조류를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며 때로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진상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내려놓지 못한 정(情)이며 수련 중에서 제거해야 할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함에 따라 정념으로 사

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마음 상태도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매번 발정념에서 자신을 깨끗이 청리할 때 시간을 좀 더 연장합니다. 전 세계 동시 발정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저는 조금 일찍 발정념을 시작해 자신의 공간장을 깨끗이 청리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 대법 제자의 강대한 정념(正念)을 발휘하라! 당신들의 위덕(威德)을 나타내어라!”(정진요지 3-정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최근 발정념에 대한 저의 작은 체득이며,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우리 가정 자료점에 대해 이야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 자료점은 가정 자료점으로, 1999년 7월 중공 악당이 대법과 대법제자를 미친 듯이 박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줄곧 이 지역 및 주변 시·현의 수련생들에게 각종 진상 자료와 대법 서적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수련생들에게 명혜망 정보와 사부님의 새 경문을 전달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 전송, 수련생들의 각종 투고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보호, 여러 호법신(護法神)의 보살핌과 수호, 명혜망의 인도와 지원, 그리고 수련생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우리는 비바람을 뚫고 용감하게 정진하며 오늘까지 평안하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1. 자료점의 설립과 운영

1999년 7월, 장쩌민(江澤氏) 악당 두목은 대법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진상을 더 잘 알리고 미혹된 중생을 구하기 위해, 현지 수련생의 주도와 지지하에 저는 아내, 그리고 기술 지원이 가능한 아들 수련생과 함께 가정 자료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비로 컴퓨터, 인쇄 장비, 소모품을 구입하고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해 진상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도트 프린터로 진상 자료를 등사용 종이에 인쇄한 뒤 등사기로 찍어냈습니다. 수련생들도 모두 잘 됐다고 했고, 일반 복사점 결과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으며 손으로 쓴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방법에는 한계가 컸기 때문에 이후 수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새 장비를 하나둘 추가하면서 각종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진상 전단, 소책자, 정기간행물, 달력, 대련(對聯), VCD, 호신부(護身符) 및 정교한 사부님의 저작들을 제작해 수련생들이 법공부, 수련,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하는 데 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장 생활과 자료 제작을 병행하며 법공부, 연공, 발정념 시간까지 확보해야 했기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 없이 바빴습니다. 때로는 정말 손이 모자라 법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는 자료를 만들며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거나 법을 외우거나, 대법제자가 창작한 음악이나 명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 자료를 제작하게 된 인연 있는 기계들도 우리와 함께 법광(法光) 속에 젖어 대법을 널리 전하고 중생을 구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법공부를 강화하고 심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혜망에 소개된 ‘자료점 안전 운영 규칙’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발정념을 매우 중시했고 자신의 공간장 내에 있는 부패물질과 변이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했으며, 구세력이 조종하는 대법을 파괴하는 나쁜 신과 흑수(黑手), 난법난귀(亂法爛鬼)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4개의 정각 이외의 다른 정각에 발정념을 할 때, 늘 한 가지 일념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바른 일이므로 사령(邪靈)이 자료점을 교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악이 어떤 망념을 품더라도 생각이 나오면 즉시 멸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대법을 근본으로 삼아 사부님을 굳게 믿고 법을 굳게 믿었으며, 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고 사령을 청리했습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의 부족함과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았고, 보안 업무를 철저히 해 자료점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2. 자료 제작 중에 마음을 닦아 집착을 없애고 효율과 품질을 높이다

진상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곧 우리가 마음을 닦아 집착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마주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료점을 막 세웠을 때 우리에게는 오직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악의 박해가 계속되면서 자료점이 파괴됐다는 소문을 잇달아 듣게 됐고 명혜망에서도 자료점이 사악에 의해 파괴됐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듣고 본 후 마음속에 간혹 ‘두려움’의 파문이 일기도 했으나 나쁜 생각이 나오기만 하면 저는 바로 ‘홍음2-두려울 것 뭐냐’를 외웠습니다. 우리는 신(神)의 길을 걷는 수련생인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식했습니다. ‘사악이 아무리 미친 듯이

날뛰어도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절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료점에 사고가 난 것은 그곳 수련생에게 누락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사부님의 보호가 있고 사부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체 마를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셨으니 마땅히 마가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마도 사부님과 법을 믿는 확고함이 부족하고, 사부님의 법에 대한 깨달음이 깊지 못하며,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神通(神通)을 자유자재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익심이었습니다. 자료점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요즘 파룬궁이 진상을 알리려고 자료를 그렇게 많이 만드니 이 복사점들이 큰돈을 벌겠군.” 저는 듣고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단번에 동요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를 복사점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이 안에는 아주 큰 이익 공간이 있겠구나!’ 집에 와서 가족 수련생에게 이 일을 말하니 그들은 생각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대법 진상 자료를 만들어 사부님의 정법(正法)을 돕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신성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대법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나요?” 가족 수련생의 말은 단번에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을 이용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같은 문제에서 저와 가족 수련생의 첫 반응이 완전히 달랐을까요? 안으로 찾아보니 이익심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던 제 이익심이 건드려졌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직장에서 조금만 더 일해도 수당을 받으려 했고 수당이 적

으면 화를 냈으며, 다른 제조사의 같은 물건을 살 때에도 싼 것을 골라 사기를 좋아했고 흥정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이 이익심을 자료 제작 과정에 가져간다면 우리 가족 수련생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소모품 구입 시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고, 자료 제작 시 재료를 아낀다면(예를 들어 소책자 표지에 코팅지 대신 일반 인쇄 용지를 쓰고 자료 판면 크기를 줄여 글자를 작게 하고 여백을 줄이고 컬러 인쇄에 저질 잉크를 쓰는 등) 그렇게 만든 진상 소책자, 명혜 달력, 호신부 등은 거칠고 보기 싫고 쉽게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장사를 하거나 자료를 사고파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 이익심을 제때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우리 가정 자료점은 질서정연해졌고 자료도 갈수록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장사를 하는 한 수련생이 연락인을 통해 그가 다른 자료점에서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자금을 보내주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돈이 부족하면 저한테 말하고, 다른 수련생들이 기부하는 돈은 일절 받지 마세요(다른 수련생들의 돈은 모두 어렵게 번 것이기 때문).” 우리도 역시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수련생이 연락인을 통해 기부 의사를 전해오면 우리는 모두 정중히 사양하며 “누가 돈을 받았으면 그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의 돈(예컨대 뜻밖의 수입이나 수련 전에 받지 말았어야 할 돈 등)은 정말 돌려줄 수 없어서 우리가 받은 뒤 영수증을 인쇄하고 장부를 만들어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해 자신도 분명히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장부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쟁투심, 체면 등입니다. 우리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서 기타 갖가지 갈등이 나타났고 일부 문제는 서로 책임을 추궁하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 소책자 제작 과정에서 인쇄 오류, 페이지 선별 오류, 제본 오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내는 늘 저에게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고 탓했습니다. 반면 저는 늘 여러 이유를 대며 우연히 생긴 일이니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했고, 어떤 실수는 아내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수련한 거야? 왜 안으로 찾지 않지?’라는 생각까지 떠올랐습니다.

한번은 다툼 뒤 사부님의 “모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모두 안을 향해 찾아야 한다”(미국서부법회 설법)라는 법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 집착을 없애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이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수련생이 수고했다고 말하면 마음에 뿌듯한 만족감이 들었고, 수련생이 우리가 만든 책이 출판사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면 속으로 우쭐해하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수련생이 진상 소책자에 빠진 쪽이나 잘못된 쪽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며 이는 불가피한 개별 사례이니 굳이 꺼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또 수련생이 다른 자료점에서 만든 호신부가 아주 예쁘다고 칭찬하면 마음에 질투가 확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예쁘지 않다는 건가?’ 저는 계속 찾고 또 찾아서 깊이 숨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집착심을 한 무더기나 찾아냈습니다. 질투심, 체면, 쟁투심,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마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 자만심,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부님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런 집착심들을 찾아낸 뒤 하

나하나 없애고 철저히 제거하니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렸고 만든 진상 자료도 더욱 규범에 맞고 아름다워졌습니다.

20여 년의 수련, 20여 년의 진상 자료 제작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삼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 세상의 험난함을 모르고, 대법을 수련하지 않으면 하늘 밖의 신선을 모릅니다. 정법시기(正法時期)에 사부님의 정법을 돕는 대법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천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중생을 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노력하고 수련에 박차를 가해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변호사 접견 저지는 전체적인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몇 년간 명혜망에서 지린성 각 현·시의 구치소가 불법 구금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저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소식을 보았다. 그 배후에는 지린성 정법위원회, 검찰원,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가 밀실 조작을 통해 변호인에게 사법국 및 변호사 소재지 사법국에서 ‘이중 비안(備案, 신고 및 등록)’ 절차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無理하게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견이나 사건 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구금된 인원을 접견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방해에 직면하여 우리는 수련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련의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이 현지 대법제자들의 전체적인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전체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례 비교: 정체 역량의 차이

정면 사례: 랴오닝성 칭위안현의 전반적인 협력

2024년 7월, 랴오닝성 칭위안현에서 수련생 10여 명이 납치됐다. 칭위안현 국보 경찰은 가족이 위임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했다. 전 현과 진, 향, 촌의 수련생들이 전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발정념을 통해 칭위안현 검찰원과 공안국 국보대대 배후를 조종하는 사악한 요소를 해체했다. 시의 수련생들도 협력하여 칭위안현 공안국, 검찰원, 현위원회에 권선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칭위안현의 아파트 건물에는 경찰이 수련생을 납치할 때 저지른 악행이 붙었고, 주민들에게 ‘칭위안현 주민들에게 드리는 권선문’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일정 기간 수련생들이 정체적으로 협력하자 현 전체 주민들이 수련생 납치 사건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대량의 사악한 요소를 청리했다. 경찰은 변호사가 오자 매우 정중하게 접견을 마련해 주었다. 뒤이어 세 명의 가족이 위임한 변호사들도 모두 접견이 허용됐다. 그동안 수련생들은 줄곧 발정념을 늦추지 않았다.

반면 사례: 지린성 류허현의 느슨한 상태

이 변호사는 또 지린성 류허현 파룬궁수련생 가족의 위임을 받아 통화 창류 구치소에 구금된 딸을 접견하러 갔다. 변호사가 두 번이나 갔지만 경찰은 접견을 거부했고, 국보 경찰은 변호사까지 납치하려는 기세로 흉악하게 굴었다. 변호사는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류허현의 이 수련생이 납치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현지 수련생들은 알지 못했다. 단체 법공부 팀도

없었고 각자 활동하며 정체(整體)를 형성하지 못했다.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일도 부족하여 큰 현임에도 주민들이 진상 자료를 거의 볼 수 없었으며, 소수의 수련생만 나가서 진상을 알렸다. 타 지역 수련생들이 류허현을 방문해 수련생들을 찾아 교류하고 정체를 형성하려 했으나, 현지의 한 수련생이 한 바퀴를 돌며 찾아보아도 수련생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 물론 스스로 세 가지 일을 묵묵히 잘하고 있는 수련생도 있을 것이다.

악행을 폭로하는 것은 악을 제지하는 무기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더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

수련생이 박해받는 것이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라는 점이다. 수련생이 박해받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집에 있는 수련생들은 마비되거나 관망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수련생들에게 발정념을 통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한다. 악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과 동행해 사람을 찾아오고, 고소하고, 진상 편지를 보내고,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자아를 내려놓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강력한 정념을 발하여公安·검찰·법원 인원 배후를 조종하는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해체해야 한다. 대

법제자는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 역시 중국공산당(중공)에 이용당하는 가련한 중생이다. 대법은 자비롭기에 그들에게 진상을 알고 구원될 기회를 줄 것이다.

결론: 전체적 공동정진 형성

실천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있겠지만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라고 하셨듯 길은 사부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다. 폭로가 목적이 아니라 중생구도가 우리의 본래 목적이다. 대법제자가 기점을 바로 잡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써서 행한다면, 특히 정체로 협력하는 힘은 매우 크다. 수련생이 박해를 당했을 때 집에 있는 수련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다하고, 나갈 수 없는 이는 발정념을 더 많이 하며, 개인이 작은 정체에 융합되고 작은 정체가 큰 정체에 융합돼야 한다.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온몸이 움직인다는 마음가짐으로 금강불과(金剛不破)의 정념의 장을 펼쳐낸다면 사악은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것이다.

정념(正念)과 인념(人念)

글/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올해 58세인 수련생입니다. 몇몇 수련생과 교류하며 수련 중에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 진상 자료 배포

처음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나갔을 때는 때때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부님의 법을 외웠습니다.

“나는 구세력의 대법제자에 대한 교란을 내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는 나의 제자이기에 누구도 관리할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 그것들이 대법제자를 이용하고 강압해 그것들의 목적에 도달하며, 이로써 나의 제자를 훼손하려는 음모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교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당신들의 집착과 부족함을 잡고 있기 때문이며, 게다가 역사상 남겨진 업력이 있는데, 이 한 차례 박해 역시 모두 이러한 요소들에서 나온 것이다.”(각지 설법6-아태지역 수련생회의 설법)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다. 누구도 나를 관할할 자격이 없으며 오직 사부님께서만 관장하신다. 나는 사람을 구하는 가장 바른 일을 하고 있다.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두려운 마음을 거부한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법공부를 깊이 하고 수련생들의 수련 체험을 보면서 ‘두려움’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중생구도를 교란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어라. 그들이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구원될 기회를 잃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나의 중생구도를 교란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도태될 것이다.’

초기에는 진상 자료를 조금 많이 가지고 나가면 남이 볼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나중이야 그것이 사람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상 자료를 여전히 박해의 증거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진상 자료는 사람을 구하는 예리한 도구이며 글자 하나하나의 이면에는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신(神)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니고 있

으면 에너지가 크게 증폭됩니다!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신(神)들이여, 사람을 구하러 갑시다!’ 저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면서 동시에 발정념을 합니다. ‘대법제자가 중생을 구하는 것을 교란하는 모든 사악과 요소를 제거하고, 중생이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는 모든 사악과 요소를 제거한다.’ 또 중생의 명석한 일면과 소통합니다. ‘진상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잘 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천만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집집마다 자료를 배포하고 나면 바른 에너지장이 형성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포된 진상 자료를 보지 않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를 보고 배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수련생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료를 소중히 여겨 버려진 것을 다시 주워 옵니다. 더러워진 건 태우고 깨끗한 것은 다시 배포합니다. 그런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마귀가 그들을 조종해 자료를 버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것이니, 그들이 이번에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발정념을 하여 중생이 자료를 버리게 하고 구원을 교란하는 사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자료를 소중히 여기고 읽은 후에는 친척과 친구에게 전해 ‘한 명이 10명에게, 10명이 100명에게’ 전해져 그의 가족과 친구가 모두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해야 합니다.

복도에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사람을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사령(邪靈)이 주입한 ‘들키면 안 돼, 신고당하면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련생들과 교류해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을 망치려는 이 사령을

멸(滅)한다! 중생은 구원을 기다리는 생명이지 결코 사악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법제자와 대법 진상 자료는 오직 선량한 사람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중생에게만 보일 것이며 악한 자는 볼 자격이 없다. 나는 의심, 박해를 인정하는 마음, 두려움, 자아를 보호하려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사심(私心)을 거부한다.’

2. 병업에 관하여

수련인에게 나타나는 병업 증상은 가상(假相)입니다. 만약 이것을 속인의 병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며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수련에 입문하는 순간 사부님께서 이미 우리 몸을 정화해주셨으므로 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고에너지 물질로 구성된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몸입니다. 우리는 삼계(三界) 내 이치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생로병사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업 현상을 마주하는 건 업을 소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을 삭감해야 하며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빗쟁이가 빗을 받으러 왔거나 구세력의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빗을 받으러 온 거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법제자다. 오직 사부님께서 관장하신다. 내가 갚아야 할 업이라면 감당하겠다. 만약 과거에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며 당신과 선해(善解)하기를 원한다.’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소업(消業)이라면 우리가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선해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정념을 하여 구세력의 박해를 제거합니다. ‘나는 대법제자다. 오직 사부님께서 관장하신다. 내가 갚아야 할 업은 감당하겠지만, 내가 감당해서는 안 될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 수련 중에 누락이 있다면 법(法) 안에서 바로잡을 것이며 구세력의 모든 안

배와 박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신이 어디에 누락이 있어 구세력에게 틈을 타 박해하게 했는지 찾아내어 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와 몇몇 수련생이 처한 증차에서 법에 대해 인식한 것입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수련생은 ‘명혜주보’ 지방판 배포를 중시하기 바란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의 정보 봉쇄로 인해 많은 민중은 현지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때 알기 어렵다. 민중의 보편적인 심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주변의 일에 비교적 관심을 두고 중시한다. 그렇다면 명혜망에 발표된 다양한 진상 자료 중 지방판 ‘명혜주보’는 필요한 보완 수단이 된다.

명혜망 2003년 11월 15일 글 ‘현지 민중에게 현지 사악을 폭로하자 ◎사부님 평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지 주민들에게 그 지역 악인의 악행과 대법제자를 박해한 진상을 알게 하며, 악인의 가족·친구·이웃 및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가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한 진상을 알게 해야 한다. 실천해 보니 이는 유력하게 사악을 제거하고, 더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세밀하게 진상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한 속인(常人)은 자기 목에 난 작은 부스럼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남극에서 일어난 40차례 대지진보다 훨씬 크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

기와 가장 가까운 곳의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며, 자기 몸과 주위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상을 알릴 때 이런 점을 이용하면 반의 노력으로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글에 대해 사부님께서는 평어를 남기셨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데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

명혜망은 매주 금요일 오후 새로운 ‘명혜주보’(중국판)를 발표하고, 보통 토·일요일에 지방판을 게재한다. 아마도 통합판과 지방판이 동시에 발표되지 않기 때문인지, 일부 수련생은 통합판만 내려받아 인쇄하고 지방판은 만들지 않는데, 이것이 내가 파악한 우리 지역의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수련생은 다년간 ‘명혜주보’ 지방판을 내려받거나 인쇄해 배포하지 않았고, 자주 자료를 배포하는 수련생조차 현지 진상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 자료점 수련생들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혜주보’ 현지 버전을 찾아보고, 해당 시(市) 주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내려받고 없으면 해당 성(省) 주보를 내려받기 바란다. 현지 진상 자료가 있으면 수련생들이 제작과 배포를 중시하기를 건의한다. 특히 박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현지 민중에게 현지의 사악을 폭로하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명혜망의 교류 글을 보면, 현지 민중에게 현지 사악을 폭로하는

것을 중시하는 지역은 박해가 크게 줄어들며, 전체적인 환경이 중생 구도에 더 유리해진다. 이는 곧 박해를 저지하고 거짓말의 해를 입은 중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수련생들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부님께서는 ‘현지 민중에게 현지 사악을 폭로하자’ 평어에서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개인의 작은 인식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주변 노년 수련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 지역에는 7~80대의 노년 수련생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법을 얻은 지 2~30년 된 대법제자들입니다. 걸어오는 과정에서 모두 법을 실증한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배울 만한 반짝이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사부님과 대법을 믿는(信師信法) 소박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중국공산당)의 박해라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법 수련의 표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요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노년 수련생들은 착실하게 수련해 온 기초와 개인의 수련 상태 등 여러 방면의 원인으로 인해 수련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련생들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 단지 현 단계에서 개인의 약간의 인식만을 대표할 뿐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즉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수련의 각도에서 가정의 갈등을 대하는 문제

한 노년 수련생의 딸이 언행에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어, 다른 수련생들이 그 딸을 우연히 만나거나 그 수련생 집에 갈 때마다 딸이 수련생들에게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여러 차례 그 노년 수련생에게 딸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수련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우리 심성을 제고시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 노년 수련생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련생 자신의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딸의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으며, 수련인으로서 딸과 일반적으로 다투지 않는 그런 높은 자세를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개인 수련의 각도에 머문 하나의 인식일 뿐이며,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해부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수련생들 사이에서 무슨 덕을 잃었다, 내게 덕을 주었다고 하는 화제가 오르내리는데 지금 우리의 수련은 단순히 개인 제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법시기 대법제자’라는 위대한 호칭을 부여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지닌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노년 수련생은 딸이 온종일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공을 들이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의 수련은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하지 못했고, 가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딸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심성이나 행동상의 허물로 인해 가족이 수련생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거나, 심지어 대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뒤에는 선의로 딸과 소통하고, 진심으로 딸에게 사과하며,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어떻게 잘해 나가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행과 실제 행동을 통해 대법제자의 풍모를 보여 주어 가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중생들까지도 대법을 인정하게 하고, 그로 인해 대법의 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기점이 바르고 방향이 분명해져, 많은 일이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입니다.

2. 몸에 나타난 바르지 않은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일부 노년 수련생들은 몸에 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난 채 이미 오랜 시간이 지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나가서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수련생은 몹시 어렵게 느끼며 무의식중에 먼저 몸 상태를 앞세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본래 자신이 맡아야 할 사람을 구하는 일도 일부 중단하게 됩니다. 또 어떤 노년 수련생은 오랫동안 지속된 신체의 바르지 않은 상태를 소업(消業, 업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몸이 좋아지면 다시 나가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업이라고만 인식하다 보니 수련생 자신이 묵묵히 감내하는 비중은 커지고, 자발적으로 안으로 찾으며 자신이 감당하지 말아야 할 부분

을 제거하는 노력은 적어지며,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수련이 매우 고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각지 설법15-2019년 뉴욕법회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만약 대법제자가 어떤 마난이나 소업에 부딪힌다면 그는 틀림없이 원인(前因)이 있는데, 자신에게서 좀 찾아보라. 그렇다, 찾은 후에 즉시 잘하면 그 정황은 즉시 좋은 쪽으로 향하고, 바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단순한 개인 수련, 소업을 위해 소업을 하던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세력과 사람을 두고 다투며 중생을 구하는 관건적인 시점에 있으며,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선을 자신에게만 고정해 채 중생의 안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때 자신에게서 찾아 바로잡는 동시에, 구세력이 우리에게 가하는 교란하고 박해하는 부분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몸 상태를 마주할 때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중요하게 보지 말며, 순순히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빠져들수록 이러한 가상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 더 크게 진화됩니다.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법제자의 정념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 비춰 보면서(물론 수련생들 모두 침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오늘은 나가서 소책자 한 권을 배포하고 스티커 한 장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부정이 되며,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은 두 권, 세 권

을 배포할 수 있고, 많은 수련생의 병업 상태는 바로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질 것입니다.

3. 사부님 보호에만 치중하고,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문제

어떤 노년 수련생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쿠터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스쿠터는 망가졌지만 본인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그때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노년 수련생은 비 오는 날 스쿠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비탈길로 미끄러졌으나, 다시 기어 올라온 뒤에도 무사했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어떤 노년 수련생은 몸에 예상치 못한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이 대법제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결과 수련생의 정념하에 정말로 아무 일도 없게 된 등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대법제자는 수련에 입문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떠날 수 없으며,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원한을 결산해주셨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해소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공간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실제로 마주했으며, 더구나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저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감사만 떠올리거나 이 일에서 자신이 고비를 넘겼다고 여기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일을, 즉 표상을 따라 안으로 찾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일이 생긴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것은 나에게 대한 하나의 일깨움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라고 보여준 것일까? 그동안 내 수

련 상태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어떤 사람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더 잘해야 할까?’ 자신에게 몇 개의 물음표를 더 던져보고, 자신에게 몇 번 더 왜인지 묻고, 생각의 흐름을 따라 차분히 정리해 내려가다 보면, 마침내 수련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노년 수련생들과 교류할 때 적지 않은 노년 수련생들이 늘 사건 자체만 놓고 말하며, 속인의 이치로 설명하고 대입한다는 점입니다. 일이 닥쳤을 때, 겉으로 웃고 그림을 따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안으로 찾으라고 일깨워주면, 수련생은 난처하게 “못 찾겠어요” 혹은 “찾을 줄을 몰라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노년 대법제자는 수련에 입문한 이래 지금까지 《전법륜(轉法輪)》을 적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은 읽었을 것이고, 각지 설법 수십 권도 매년 최소한 한 번은 체계적으로 다 학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부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각자 서로 다른 층차에서 정진하는 데 충분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주변 수련생들에게서 나타난 몇 가지 상태를 직간접으로 보고 들으며 마음이 다소 조급해져 서둘러 글을 적게 됐으며, 수련생들과 함께 토론하여 함께 제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정법 노정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수련생 모두가 자신의 수련을 중시하고 손을 맞잡아, 이 찰나처럼 지나가는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걸어가며 중생을 이끌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25년 전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목격자들이 거짓말 폭로

[명혜망](자오둥쉐, 쑹전옌 기자 종합평론) 25년 전인 2001년 1월 23일, 중국공산당(중공) ‘중앙텔레비전(CCTV)’은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전국 선전의 최우선 과제로 보도해 모든 중국인을 뒤흔들었다. ‘분신’의 참혹함은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자극했다. 전국 매체가 밤낮없이 보도를 쏟아낸 이후, 많은 이는 파룬궁(法輪功)이라는 말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증오를 느끼게 됐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실은 이것이 중공이 연출한 사기극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당수 장쩌민(江澤民)은 3개월 내에 민간 수련 단체인 파룬궁수련자들을 소멸하라고 호령했다. 그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소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온갖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살인과 축재(蓄財) 등 조잡한 서사를 꾸며냈다. 그러나 19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7개월이 지나도록 파룬궁이 ‘소멸’되지 않자, 이른바 ‘천안문 분신’이라는 세기의 사기극을 내놓은 것이다.

영상이 방영되자마자 수많은 식견 있는 이들과 내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신화통신과 CCTV가 공개한 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밀 분석한 이들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 속에서 분신자 류춘링(劉春玲)은 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휘발유를 담았다는 왕진둥(王進東)의 사이다 페트병은 어째서 불에 타지 않았는가? 광장의 수많은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현장 촬영에 원경, 중경, 근경이 모두 구비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더불어 내부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내막도 속속 전해졌다.

현장 근무병의 목격 사실

2016년 3월 28일, 명혜망에 게재된 중국발 투고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 위메이(玉梅·가명)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감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자 위메이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불가 수련 대법이자 정법(正法)임을 소개했다. 또한 이른바 ‘천안문 분신’은 파룬궁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성은 즉시 “저도 ‘천안문 분신’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라고 대답했다. 깜짝 놀란 위메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베이징에서 복무 중이에요. 그해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천안문 분신’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그는 우리에게 ‘저 분신자들은 파룬궁수련자가 아니야. 그날 내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이라고 말했어요.”

“근무 전날 남자친구는 천안문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다음 날 근무 중에 멀리서 차 몇 대가 오더니 사람들이 내리는 걸 봤고, 잠시 후 그들이 불을 붙였다가 다시 끄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당시 남자친구는 영화를 찍는 줄 알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 바로 그날 천안문에 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파룬궁을 모함한 것이었어요!”

현장 목격자가 폭로한 류춘링 피살 세부 사항

충칭시 유중구 샤오스쯔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가 파룬궁수련자

들을 납치하던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분신 사건’ 당일 점심을 먹고 습관적으로 천안문 광장을 돌고 있었어요. 기념비 쪽으로 가는데 돌계단 아래에 소화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계속 걷다 보니 북쪽에서 불길이 솟는 게 보였고, 경찰들을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장한 군경이 수동 소화기를 휘둘러 연기에 휩싸인 한 여성을 강하게 내리치는 걸 똑똑히 봤어요. 여성은 그대로 쓰러졌죠. 타격이 너무 강해서 소화기 손잡이가 공중으로 튕겨 나갈 정도였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저건 살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현장의 군경 중 누구도 그 사내를 제지하지 않았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전 등골이 오싹해졌고 심정적으로 8~90%는 내막을 알 것 같았어요.”

직원은 이어 말했다. “나중에 파룬궁수련자들이 배포한 ‘분신 진상 VCD’를 봤는데, 느린 화면으로 분석해 보니 머리 뒤로 날아간 길쭉한 물체는 사실 소화기 손잡이였어요. 그게 마침 카메라에 찍힌 거죠. 소화기는 뿔어져 나온 거품에 가려져 방송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중공 정법위가 파룬궁을 아무리 요마화(妖魔化)해도, 저는 그들의 행위가 증오를 조작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장 공안국장, 자금성 관람 중단하고 천안문 광장 ‘분신’ 보라는 통지 받아

2018년 6월 2일, 명혜망에 게재된 또 다른 중국발 투고에 따르면 2001년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 발생 며칠 전, 전국의 현급(縣級) 이상 공안국장들이 베이징으로 소집돼 회의를 열었다.

사건 당일 그들은 긴급 통지를 받고 천안문으로 향해 분신 현장을 목격했다.

이 글의 저자 창칭(長靑)은 신장(新疆)에서 60여 년간 거주하며 수십 년간 교직에 있었고 기업도 운영했다. 2002년 4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래 살았던 도시로 가 일을 보게 됐다. 해당 도시의公安국장이 직접 차를 몰고 찾아와 그들에게 이야기를 청했고, 기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세 사람은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창칭이 천안문 ‘분신’은 가짜라고 말하자 公安국장은 알겠다는 듯 당시 자신들도 천안문 광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천안문 ‘분신’ 사건 며칠 전 전국의 현급 이상 公安국장이 베이징 회의에 소집됐고 자신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자금성을 관람하던 중 갑자기 빨리 나가서 천안문 광장으로 가라는 통지를 받았고, ‘분신’이라는 연극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한족인 이 국장은 당시 50대였다. 1999년 그는 창칭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 조사해봤는데, 우리 지역 파룬궁수련자 200여 명 중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수련 전 남녀 행실 문제가 있던 한 명도 수련 후에는 사람이 변했죠. 이번 회의에서 어느 부서 지도자는 파룬궁은 아무 문제도 없으며 오히려 의료비를 많이 절약해준다고 말하더군요.”

1999년 7월 박해가 시작된 후 현지에서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납치됐을 때도 이 국장은 경찰들에게 정책대로 처리하고 수련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덕분에 이 지역 수련자들은 15일 구류 후 바로 풀려났고, 구류 기간에도 책을 보거나 연공할 수 있었으며 고문이나 갈취도 없었다.

반면 신장의 다른 구치소 상황은 매우 참혹했다. 강압 심문과 탄압 외에도 남성들은 식발을 당하고 연공을 금지당했으며 구치소 규칙을 외우지 않으면 매를 맞았다. 또한 고된 강제노동에 질 낮은 음식, 10m² 공간에 최대 11명이 생활하는 등 고통이 심했다. 이후 정치적 박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던 이 공안국장이 인민대표 부주임으로 전보되자 현지의 박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CCTV 기자 “간파될 줄 알았으면 찍지 않았을 것”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은 관영 매체인 중앙텔레비전(CCTV)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2002년 초, CCTV ‘초점방담(焦點訪談)’ 프로그램의 리위창(李玉強) 기자는 허베이성 법제교육훈련센터로 가 불법 감금된 대법제자들과 이른바 ‘좌담’(세뇌 전향 목적)을 가졌다. 당시 수련생들이 영상 속 의혹들을 질문했는데, 특히 온몸이 검게 탄 왕진동의 다리 사이에 놓인 휘발유 병(페트병)이 왜 멀쩡한지 물었다.

리위창은 어쩔 수 없이 왕진동 다리 사이의 스프라이트 병은 자신들이 놓아둔 것이며 해당 장면은 ‘보충 촬영’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녀는 파룬궁이 분신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며, 간파될 줄 알았으면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리위창의 발언은 그녀가 ‘분신’ 이후 인터뷰만 한 것이 아니라 연출 당시 현장에서 지휘에 가담했음을 드러낸다. 리위창이 분신 조작 사건의 날조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파룬궁을 모함하는 시리즈 인터뷰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로 증명됐다. ‘초점방담’의 수많은 파룬궁 비방 프로그램에서 현장 기자는 거의 리위창이 도맡았지만, 그녀는 현장 인터뷰 시 정면을 보이지 않고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노출했다.

맺음말

‘천안문 분신’은 중공이 조작한 세기의 위조 사건으로 중국인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관영 매체를 믿는 수많은 사람을 ‘전향’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장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당의 도구이자 희생양이었다. 이제 진상으로 당신을 25년간 태워온 거짓 불길을 끄길 바란다.

1. ‘레이펑(雷鋒)을 배우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노인과 어린이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진선인(眞·善·忍)은 보편적인 진리다. 진선인을 받드는 사람들이 어찌 대중 앞에서 자살하겠는가!

2. ‘분신’은 격렬하고 극단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런 극단과 격렬함이야말로 바로 ‘공산당’의 행위적 특성이다.

3. 느린 화면으로 분석할 때 드러나는 의혹들은 그 자체로 중공의 범죄 증거다.

다행히 분신의 거짓 불길도 진실을 추구하는 중국인의 마음을 태우지는 못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6년 1월까지 이미 4억 5700만 명이 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에서 탈퇴(삼퇴)했다. 이는 인심의 각성이자 생명의 강인함이다.

석탄 속의 탄소 분자가 다 타버리면 석탄은 재가 된다. 중공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더 많은 중국인이 더는 ‘분신’의 거짓말에 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중공과 악을 멀리해야만 인생에 희망이 있다.

부(富)가 더 이상 사회 흐름의 나침반이 아닐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진다

글/ 샤오청언(肖承恩)

[명혜망] 중국에 영하 40여 도까지 떨어지는 드문 한파가 몰아쳤다. 이는 마치 중국의 사회 현상과도 같다. 경제는 썰렁하고 실업자는 많으며, 겉만 번지르르한 데이터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온도’를 가리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부가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인성(人性)의 온기가 오히려 미약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 ‘맥난민’의 구조 변화

중국 많은 도시의 맥도날드에는 심야가 지나면 잠시 몸을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머물곤 한다. 이들은 ‘맥난민(McRefugees)’이라 불린다. 맥도날드에 공식적인 ‘수용 정책’은 없지만, 직원 교육 지침에는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라는 내용이 있다. 2025년 들어 ‘맥난민’은 기존의 노숙인에서 직장, 투자, 가정, 사업 등에서 좌절을 겪는 젊은 층으로 확대됐다.

2. ‘0원 게시물’의 대폭 증가

소셜미디어에는 가격을 ‘0원’으로 표시하고 무료로 물건을 나눠주는 게시물이 많이 등장했다. 낚아서 팔아도 큰돈이 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셴위(閒魚) 등 플랫폼에서 2025년 ‘0원’ 게시물 수는 2024년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3. ‘파리 가게’의 안내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및 청두, 충칭 지역의 일부 길거리 소형 음식점들, 이른바 ‘파리 가게’(蒼蠅店, 파리가 날아다닐 것 같은 영세한 식당)라 불리는 식당들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가게에 들어와 한 끼 세트를 드셔도 됩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작은 식당들의 장사가 아주 잘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고단함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행동들은 이념적 선전이나 설교와는 무관하다. 적십자 모금에는 관심이 없고, ‘레이펑(雷鋒)을 배우자’는 활동에도 호응이 적다. 공산주의의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구호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선의 앞에서 오히려 공허하고 무미건조해 보인다.

4. 불안과 절망 속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다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며, 생존 압박이 보편적인 문제가 될 때 개인이 ‘이타적 행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저비용의 항우울 메커니즘이 된다고 분석한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물질적 차원의 해석만으로는 불안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온전히 달래기 어렵다.

부가 더 이상 사회 흐름의 ‘나침반’이 되지 않고, 성공이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상투어’가 되지 않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은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다’. 젊은이들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

웨이보 등 공공 소셜 플랫폼의 의미 분석에 따르면, 2025~2026년 사이 ‘벼락부자’, ‘연봉 100만 위안’, ‘재정적 자유’ 등의 언급 빈도는 40% 감소한 반면, ‘정신적 소모’, ‘상호부조’, ‘미니멀 라이프’, ‘안정’ 등의 언급률은 60% 증가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2025년에 들어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인생과 실패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정신 멘토형 블로거’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역사 속 기근, 전쟁,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는지를 전하며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당당왕(當當網)에서 출판된 ‘지행합일 왕양명(知行合一王陽明, 왕양명의 일대기와 사상을 풀어낸 대중 교양서)’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120만 부를 돌파했다. 전체 도서 시장이 약 1% 성장하는 데 그친 상황에서 심신 건강 관련 서적의 단일 성장률은 20%를 넘었다.

물욕의 광풍은 더 이상 요란하게 몰아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고요함을 찾기 시작했다.

5. 끊임없이 굶이쳐 흐르는 한 줄기 맑은 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도 한 줄기 맑은 물이 존재하며, 환경이 아무리 가혹해도 여전히 굶이치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20여 년 넘게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 정신세계의 강인함이 더욱 또렷이 드러난다. 특히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억압과 오해를 받아왔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량함을 지켜왔다. 그들은 어둡고 초조한 세상 속에서 말없이 도덕과 용기의

신성한 빛을 받고 있다.

작은 여관 주인: 1999년 하반기, 한 현(縣)의 작은 여관 주인은 모든 손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다. 어떤 손님들은 바깥 음식이 물려 재료를 사 와 직접 요리를 하기도 했는데, 주인은 연료와 조리도구, 양념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손님들은 “이 여관에 오면 집에 온 것처럼 따뜻하다”고 말했다. 안후이성에서 채권을 받으러 나온 한 사람은 남은 돈이 20위안뿐이어서 여러 여관에서 투숙을 거절당했다. 여관 주인은 “여기서 묵으세요”라며 10위안만 받았다. 처음 이틀 동안 그는 만두와 찐지로 끼니를 때웠고, 이틀이 지나자 배고파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여관 주인은 그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돌봐줬다.[1]

은행 직원: 2000년, 한 은행 직원의 자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국가의 의료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대출 기관이나 하급 부서에서 보내온 봉투와 선물은 돌려줄 수 있으면 모두 돌려주었고,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것은 기부했다. 심지어 규정에 따라 배정받은 시가 30만 위안이 넘는 새 아파트 한 채도 스스로 사양하겠다고 나섰다.”[2]

모범 교사: 2001년 전후, 한 모범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직원 주택을 분양했다.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일이었고, 80~90제곱미터 되는 집을 5만 위안에 살 수 있었으며, 학교 안에 있어 출퇴근의 수고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배정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교장은 이 교사를 사무실로 불러 사정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신청을 포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건상으로 보면 그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곱

곰이 생각한 뒤 교장에게 집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그 집 값은 30만 위안이 넘게 올랐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3]

이웃 아주머니: 2019년, 한 아주머니의 이웃집에서 마당 공사를 했다. 이웃은 아침에 물 한 주전자를 놓아두고 급히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점심과 차를 챙겨줬고, 이를 열흘 넘게 계속했다. 이웃은 1년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큰 선행을 하고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집을 자기 집처럼 돌봐 주셨네”라고 말했다.[4]

‘성인(聖人) 같은 동료’: 2021년, 한 학교의 여교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일을 겪었다. 처음에는 한 동료가 그녀에게 날을 세우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일이 경찰서까지 가게 됐을 때 경찰은 그 동료에게 말했다. “그분들은 모두 아주 선량한 분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 일을 겪은 뒤 그 동료는 교장에게 편지를 써서 그 여교사에 대한 자신의 관찰과 느낌을 적었다. “그녀는 두부를 살 때도 잘 팔리지 않을까 봐 일부러 쉰 쪽을 고릅니다. 닭이나 생선을 살 때도 산 것을 고르지 않고 죽은 것을 삽니다. 괴롭힘을 당하고도 그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항상 안으로 찾으려 합니다. 누구든 가리지 않고 도와주며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도 돕고,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서 뒤에서 험담한 사람도 돕습니다. 잡으러 온 경찰도 돕고, 감옥에 가서 곤경에 처한 사람도 돕습니다. 여러 번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조차도 돕고 도리를 이야기

해주며 싫어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보다 더 잘 돌보고 남을 위해 쓴 돈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5]

산간 마을 주민들: 2025년, 동북의 산간 지역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다. 오래전 이곳의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기른 채소를 먼저 먹지 않고 남의 밭에 있는 채소를 훔쳐 먹곤 했다. 남의 집 채소를 다 훔쳐 먹고 나서 자기 밭에 가보면, 자기 집 채소도 이미 누군가에게 다 도둑맞은 뒤였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마치 다른 곳으로 변한 듯하다.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몇 년 전 마을에 한 가구가 있었는데, 노인이 집안 재산을 모두 막내아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노인을 돌보지 않았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재산 분배로 불만이 커졌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누구도 노인을 돌보려 하지 않았다. 그중 한 형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노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왔다. 노인의 모든 생활비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노인은 때때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며,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시비를 뒤바꾸곤 했다. 그 부부는 노인에게 대한 원망과 사사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노인을 이해하고 더욱 선하게 대했다. 결국 노인은 부부의 진심에 감동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반면 막내아들 집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막내 며느리가 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이 부부는 그동안 쌓였던 원한과 이의심을 내려놓았다. 막내가 돈

이 부족하면 돈을 가져다줬고, 생활용품이 부족하면 부부가 직접 나서 도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내 집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부는 늘 먼저 나서 선한 마음으로 대했다. 마침내 오랫동안 얼음처럼 굳어 있던 한 집안의 마음이 그들의 선량함에 녹아내렸고, 형제 사이도, 형수와 시동생 사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모두 좋아졌다.

이들의 행동은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줬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며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됐다. 점차 이 마을의 풍속은 좋아지기 시작했다.[6]

위에 소개된 것은 그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명혜망에는 이러한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99년부터 2026년까지 27년, 9000여 일 동안 매일같이 명혜망에는 전국 각지의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선인(眞·善·忍)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며 주변의 모든 일을 대하는 방법을 나눈 사례들이 실리고 있다.

6. 한 권의 책 - 오래도록 지속되는 강대한 정신력의 근원

그렇다. 이들은 바로 진선인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파룬궁수련생들이다. 그들의 밝고 향상되는 모습을 마주하고, 어떤 이들은 ‘분신자살’ 조작극까지 만들어 그들의 도덕적 빛을 악마화하고 말살하려 했다.

1999년,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잔혹한 탄압과 위협을 받았지만 시종일관 평온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각계와 소통해왔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전법륜(轉法輪)’이라는 한 권의 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때 ‘베이징 청년보’가 선정한 10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으며, 지금까지도 중

국에서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하는 출판물이다(2011년 3월 11일, 국가신문출판서 제50호령).

만약 좋은 책을 찾고 있다면, 혹은 ‘전법륜’을 접할 인연이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성껏 읽어보기를 바란다. 분명 예상하지 못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1] ‘대법 수련으로 나는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됐다’, 명혜망, 2026년 1월 18일.
- [2] ‘선한 마음으로 잠든 양심을 깨우다’(중앙판공청·국무원 신방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명혜망, 2000년 5월 11일.
- [3] ‘5·13 경축’ ‘수련 석 달, 심성의 변화가 하늘과 땅 차이’, 명혜망, 2022년 5월 17일.
- [4] ‘여러 환경 속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실증하다’, 명혜망, 2019년 6월 28일.
- [5] ‘비바람 속 21년, 직장에서 법을 실증하다’, 명혜망, 2021년 4월 30일.
- [6] ‘5·13 경축’ ‘닭과 개도 편치 않던 작은 산촌, 오늘날의 큰 변화’, 명혜망, 2025년 5월 14일

투고문을 쓸 때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글/ 필농(筆農)

[명혜망] 인터넷 정보(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중국 대륙 출신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습관이 없다. 저작권 규정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가장 쉽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게 만들고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다.

아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주의사항으로 글을 쓰거나 전재·편집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며, 저작권 상식을 익히는 데 참고가 되도록 정리했다.

1. 총원칙: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 표시가 없더라도 작품이 독창성을 갖추고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돼 공개됐다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2. 흔한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 위험 요소

1) 문자 콘텐츠

뉴스 보도, 웹사이트 글, 공식 계정, 블로그, 포럼 게시글 모두 저작권이 있다. 문단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글을 짜깁기하면 침해 위험이 매우 높다. 몇 글자를 바꾸거나 표현을 달리해도 구

조와 표현이 상당히 유사하면 여전히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흔한 오해로는 ‘저자를 밝히면 괜찮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쓴다’, ‘돈을 벌지 않았으니 침해가 아니다’, ‘수정했으니 그 사람 것이 아니다’ 등이 있다. 이런 ‘이유’는 모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인물 사진과 사유재산 이미지의 게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오직 계약 문구만 보고 계약과 저작권 권리 관계가 완전한지만 따지며 업계 관행이나 개인 습관, 동기(선의든 악의든)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법률서한 문화는 매우 성숙해 있어 대량 이미지 스캔과 자동 대조를 활용하고 국경을 넘는 기업과 독립 웹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이미지 침해자를 겨냥한다. 이것은 침해자와 변호사가 함께 키운 하나의 현대적 산업이다.

2) 이미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이미지 저작권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간 사용시 반드시 라이선스 범위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바로 사용하는 행위는 가장 흔한 침해 위험지대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진 작품, 포스터, 만화, IP 캐릭터(애니메이션 캐릭터 등)를 가져다 쓰는 것도 침해 위험이 높은 행위이므로 중단해야 한다.

개인의 2차 창작물이나 영상 화면을 캡처해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침해가 될 수 있다. 사전에 공식 허가를 받은 이

미지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음악·효과음·영상

배경 음악을 마음대로 넣거나(특히 상업용) 영화·드라마 클립이나 예능 클립을 편집하거나 ‘다운로드 가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작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4) 교육 자료, 유료 자료의 외부 유출도 저작권 침해 고위험 영역이다.

3. ‘합리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라이선스에는 최소한 네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지역 범위(Territory), 사용 방식(Usage Type), 사용 주체(Who can use), 라이선스 유형이다.

라이선스의 ‘지역 범위’의 경우 예를 들어 많은 중국 이미지 플랫폼의 ‘상업 사용 가능’은 사실 중국 시장과 일반 홍보만 적용되며 해외 광고나 브랜드 홍보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라이선스의 ‘사용 주체’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인지 소속 회사에 부여된 것인지를 말하며 무단으로 범위를 넘기면 역시 침해에 해당한다.

사용 방식이란 개인 사용, 상업 사용(광고, 마케팅),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인쇄물 및 2차 편집·자르기·합성 등을 말한다.

라이선스의 일반적 유형에는 RF(Royalty Free, ‘무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면제를 의미)와 RM(Rights Managed, 반드시 약정대로 사용해야 함) 두 가지가 있다.

저작권 관련 주요 표시로는 CC0(저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해 작품을 ‘공공영역’에 넣는 것), CC-BY(상업용 포함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반드시 저자를 표시해야 함), CC-BY-NC(저자 표시+비상업적 사용), CC-BY-SA(저자 표시+동일 조건 공유, 유료 강좌·회원 전용 콘텐츠·회사 핵심 자료에는 부적합하고 타인이 가져다 재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콘텐츠에도 부적합)가 있다.

CC-BY-SA 라이선스가 있을 때 저자 표시는 어떻게 쓰는가? CC-BY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저자명, 작품명, 라이선스 종류(CC-BY-SA), 원본 링크를 포함한다.

중국에서 ‘합리적 사용’은 ‘마음대로 사용’과 같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일 것, 소량 인용(원작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출처와 저자를 명확히 표시할 것, 저자의 권익을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주의할 점은 전체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광고·마케팅·유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용과 비상업용의 차이는 매우 크며 일단 ‘수익 창출, 유입, 홍보’에 사용되면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가 비교적 안전한가?

자신의 원작 콘텐츠, ‘상업 사용 가능’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소재, 공공영역 작품, 저작권 이미지/음악 플랫폼(유료 또는 무료)의 콘텐츠가 비교적 안전하다.

결론: 반드시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존중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 1) 사용 전에 먼저 ‘저작권 설명/이용 약관’을 확인할 것
- 2) 라이선스 캡처 화면이나 페이지를 저장해 둘 것
- 3) 출처를 표시할 것(반드시 침해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 4) 상업용으로 쓸 때 저작권이 확실하지 않은 소재는 차라리 사용하지 말 것

저작권 존중은 자기 존중이며 타인과 창작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선의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며, 진을 닦고 자율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운 현대인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 2026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국회의사당 옆 화폐광장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파룬궁을 알리고 진상을 전하는 활동을 펼쳤다. 1월 24일, 스톡홀름에는 또다시 눈보라가 몰아쳤다. 비록 날씨는 매우 춥고 눈까지 내렸으나 진상 알리기 활동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적지 않은 이가 눈보라 속에서 평화적으로 박해에 반대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의 확고함과 용기에 엄지척하고 서명으로 성원과 지지를 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11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781만 3585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